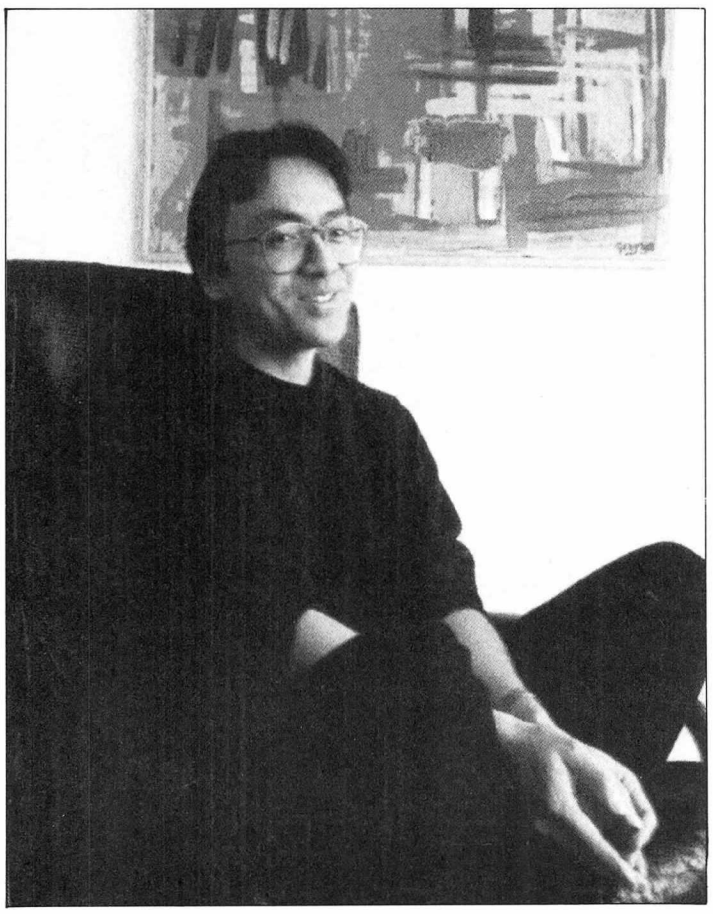
예술에 관한 방대한 판타지 소설

일본계 영국작가 이시구로의 신작소설 평가 높아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카주오 이시구로.

〈남아 있는 나날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일본계 영국작가 카주오 이시구로(40)의 신작소설 《언콘솔드(*Unconsoled*)》(페이버刊)가 진지한 작품세계로 영국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예술에 관한 방대한 판타지 소설'로 소개한 이 작품은 새뮤얼 베케트나 프란츠 카프카의 것과 흡사한 상징적이고 전위적인 분위기와 날카로운 사회비판의식이 특징이다.

소설의 무대는 독일어권 중부 유럽의 한 도시. 명확한 지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라이더는 어느날 리사이틀 공연의 초청을 받아 이 곳을 찾아온다. 여기에서 그는 카리스마적인 작곡가 겸 정치지도자인 크리스토프와 주정뱅이 지휘자 브로드스키간의 오랜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두 사람의 정치적 패권 다툼에 질려버린 시민들이 아예 외지인인 라이더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처럼 다소 황당한 설정을 통해 예술가에 대한 일반인의 지나친 환상과 기대를 꼬집고 있다. 특히 동유럽에서 공산체제 붕괴 이후 체코의 하벨 대통령 등 예술가들이 대거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풍자로도 읽힐 수 있다. 작가 자신은 "나치즘, 공산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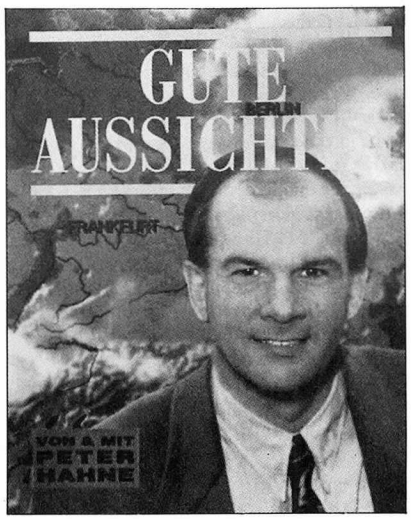
카주오 이시구로는 4세때 일본을 떠나 영국에서 성장해온 작가로, 영국인보다 더 영국적인 작품을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2년도 데뷔작 《언덕의 희미한 전경》《부류(浮流)하는 세상의 예술가》 경우 일본의 전쟁에 대한 죄의식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89년 영국최고의 문학상인 부커상 수상작 《남아 있는 나날들》에선 한 귀족 집안의 집사를 통해 영국사회의 이면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앤소니 홉킨스, 에마 톰슨 주연의 영화로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많은 작가들이 저널리스트,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주오 이시구로는 오로지 글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외골쑤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소설가로서 나는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탐구과정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서 진지한 작가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언콘솔드》를 "대단히 독창적이고 균형잡힌 소설"로 극찬했다.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책

독일 국민이라면 페터 한네(Peter Hahne)라는 이름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의 얼굴에 익숙하다. 동료 언론인들은 페터 한네를 독일 최대의 국영방송국인 ZDF의 뉴스프로인 〈Heute〉의 가장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진행자로 꼽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13년 동안 십여권의 책을 왕성하게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한네의 책을 출간해온 핸슬러 출판사(Hänssle-Verlag)에 따르면 그동안 그가 저술한 책의 판매부수는 총 200만부를 훨씬 웃돌고 있다. 《고통-신은 왜 고통을 허락했는가?》《새로운 희망의 한계들》《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포기할 이유는 없다》 등 인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씌어진 한네의 책들은 대부분 문고판형에, 4마르크(약 3000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한네의 책들은 컬러사진과 함께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라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작가 페터 한네의 최대 베스트셀러는 《좋은 소식들》로, 1993년 이후 에만도 10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후속편인 《좋은 전망들》도 이미 5만부의 초판을 출간해 놓은 상태이다. 두권은 모두 시간 소유에 대한 문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정보홍수 시대의 인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선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한네의 저서가 독자들에게는 '영혼의 치유책'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이다.

모차르트의 인간적 면모 밝힌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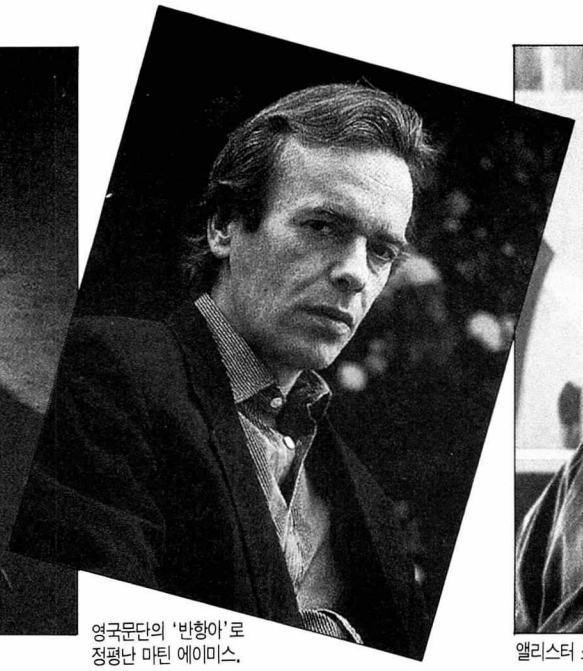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곡가 중 그만큼 수없이 많은 전기·연구서와 영화의 소재가 됐던 인물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모차르트 : 어떤 인생》(하퍼콜린스刊)이란 전기가 새로 출간됐다. 저자는 1977년 베토벤 전기로 명성을 얻은 음악학자 메이나드 솔로몬. 별로 새로울 것 없어보이는 표지를 넘기는 순간 독자는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제까지 어떤 전기작가도 밝혀내지 못했던 모차르트의 인간적 면모를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타임》지 최근호는 이 책을 모차르트 관련 책 중 '가장 인간적인 체취를 지닌 걸작'으로 평가했다.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모차르트와 아버지 레오폴드의 애증관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등장하듯 모차르트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1779년 7월 3일 파리 연주 도중 동행했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일주일이나 연락을 미뤘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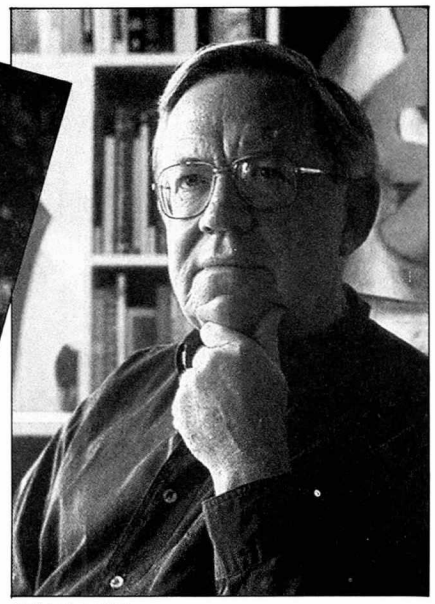
모차르트가 이런 심리상태를 갖게 된 이유는 레오폴드의 독선적 성격 때문이란 것이 저자 솔로몬의 분석이다. 레오폴드는 아들이 성인으로 변모해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세기 유럽궁정을 매료시키기 위해선 신동의 이미지가 계속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아들을 미숙한 어린이처럼 대했고, 이런 자세는 모차르트의 성격을 비뚤어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어린아이같은 유치한 면모와 깊은 예술성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일그러진 부자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18세기 유럽 음악계의 주요 인물들,

모차르트.



영국문단의 '반항아'로 정평난 마틴 에이미스.



앨리스터 스파크스.

냉담한 성격의 어머니, 아내 콘스탄제 등도 이 작품에서 독자의 시선을 끄는 부분들이다. 특히 저자는 모차르트가 사촌 바즐레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속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 한편 비밀스런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낭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품을 지닌 모차르트가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저자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신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고통을 통해 탄생됐다는 점을 책에서 부각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문단 치부 드러낸 화제작

영국문단의 영원한 반항아로 정평난 마틴 에이미스(45)가 이번에는 동료작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소설 《인포메이션》(하퍼콜린스 刊)을 내놓아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출세를 위해 서로 물고 뜯는 작가 두 사람을 통해 문학계의 치부를 드러내 말썽을 빚고 있는 것. 더구나 이 작품은 지난해 에이미스가 하퍼콜린스출판사를 상대로 사상 최고액수인 80만 달러를 계약료로 요구해 화제가 됐던 것이어서, 정작 작가 자신이 탐욕스런 인간이면서 남 탓만 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주인공은 옥스포드 대학 동창인 리처드 털과 그윈 배리. 두사람은 런던의 같은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작가로서 명성을 떨칠 날을 꿈꾼다. 재능꾼인 털은 먼저 작품을 발표하고 평론가들의 인정을 받지만 후속작을 내놓지 못해 남의 소설에 대한 서평이나 쓰면서 30대를 보내게 된다.

반면 뒤늦게 데뷔작을 내놓은 그윈 배리는 두번째 작품이 크게 성공하면서 명성과 돈을 한손에 쥐게 된다. 친구의 성공에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된 털이 배리의 글솜씨가 형편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과정을 작가 에이미스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에이미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킹슬리 에이미스의 아들로 《머니》《런던필드》 등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평론가 A. N. 윌슨이 "영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미있는 작가"로 평가했을 정도로 감각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문체를 지니고 있다. 최근 자신이 이혼 때문에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신문 가십난을 장식하자,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중년에 위기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라고 반박할 만큼 성깔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만델라의 정치 이면 추적

언론인은 역사의 현재형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쓰고 있는 역사 속에 직접 참여하는 언론인의 숫자는 그리 많지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데일리 메일》지의 편집자 앨리스터 스파크스는 인종분규와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의 양심을 대표하는 행동파 언론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자 겸 칼럼니스트인 월터 리프만의 이름을 빌어 '남아공의 월터 리프만'으로 불리는 그가 넬슨 만델라의 석방 및 대통령 당선 과정의 이면을 추적한 《내일은 또다른 국가이다 : 남아공의 변화로 향한 길의 뒷이야기》(힐 앤드 왕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정치협상의 이면을 생생하게 밝혀 남아공 관련 저서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스파크스는 90년에도 《남아프리카의 마음》이란 책을 내놓아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었다. 따라서 이번 책은 속편격.

《내일은…》은 만델라 석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5년 만델라의 부인인 위니는 건강이 악화돼 교도소 병원에 입원해있는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케이프타운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때 남아공의 법무장관 코비 코트시라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대담한 성품인 위니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1등석으로 걸어가 장관과 즉석 토론을 벌였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코트시타 장관은 장기복역수 만델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직접 그를 면회했다.

만델라는 교도소로 찾아온 정부관료를 정중하게 맞아들였다. 코트시타 장관은 스파크스의 책에서 "첫 만남에서 그의 위엄, 무게, 진실성, 소박한 태도 등에 깊은 감명을 느꼈다"고 회상하고 있다. 남아공 흑인의 적인 백인 정치가를 마치 절친한 친구처럼 점잖고 당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코트시타는 "어쩌면 이 사람이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만델라가 보낸 편지에서 종족간의 화해 방안에 관해 밝힌 여러가지 견해들도 코트시타의 마음을 움직였다.

코트시타와 정보책임자 니엘 바나드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만델라와 비밀위원회를 구성, 흑백화합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 89년 보타 대통령과 만델라는 역사적인 비밀화합을 가졌다. 바나드는 "두사람이 악수하기 직전까지 대단히 떨리고 긴장됐다. 만델라의 구두끈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꿇어앉아 매주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밀고당기는 협상끝에 결국 만델라는 90년 석방됐다. 저자 스파크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등 만델라 진영 내부에 깊숙이 접근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스파크스가 양쪽 모두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델라는 약 1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공개토론회를 갖기 전 스파크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만델라의 개인적인 일화들도 이 책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들. 특히 만델라를 감시하던 교도관이 비밀리에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 어린 두 자녀와 다정한 만남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만델라를 이념가 또는 구원자로 묘사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을 갖춘 실용적인 정치가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남아공을 "전세계 인종관계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일종의 실험장"으로 지적하면서 "흑백상호간의 조화를 통해 결국 다인종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애리〉